

노동정책연구  
2025. 제25권 제2호 pp.123~133  
한국노동연구원

서 평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에서 바라본 노동

『좁은 회랑: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저,  
장경덕 옮김, 2020)

조성재\*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그리고 사이먼 존슨은 무수히 많은 전문적 학술논문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세 권의 대중서를 발간하였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2012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이어 2019년에는 『좁은 회랑』이라는 저서를 공저하였으며, 2023년에는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이 『권력과 진보』를 내놓았다. 세 권 모두 이른바 ‘벽돌책’으로서 방대한 분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거나, 일부만 읽고 책장에 꽂아두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사회과학적 분석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다면 이만한 책들이 없다. 그중 가장 최근 저작인 『권력과 진보』에 대해서는 전병유(2023)와 정준호(2023)의 서평이 이미 학술지들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좁은 회랑』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들 책은 대중서이지만, 교양서에 그치지 않는다. 세 권의 책에는 저자들이 엄밀하게 분석해온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론적 설명이 탄탄하게 깔려있다. 특히 애쓰모글루의 경제학은 치밀한 이론적 모형과 이에 대한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증명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복잡한 수식들이 대중서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적절히 버무려져 있다. 이는 물론 정치학자인 제임스 로빈슨과 각종 기관에서 현실참여형 연구를 해온 사이먼 존슨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애쓰모글루가 초점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chosj@kli.re.kr)

두고 연구해온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노동경제학 등이 이러한 현상, 역사, 이론, 계량의 종합적 접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애쓰모글루가 전개하는 정치경제학을 제대로 맞볼 수 있는 저서가 『좁은 회랑』이다.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정치학자와의 공저라서 그런지 책에는 아테네와 잉카에서 나치와 덩샤오핑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정치 체제와 그 변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진정한 ‘정치’경제학 서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분석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정치학적이면서 경제학적이다. 다만, 여기서 경제학적이란 것은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가격이론이나 시장과 관련한 논의가 아니다. 그것은 계급·계층과 분배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그것이 생산, 혁신 및 노동과 맺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 마르크스의 고전 정치경제학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이 책은 정치적 권력의 성립 및 작용,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와 그로 인한 제도의 창출과 변형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주목 받은 정치경제학 주제인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와도 결이 다르다. VoC 논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각 주체의 행위 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상호보완성과 경로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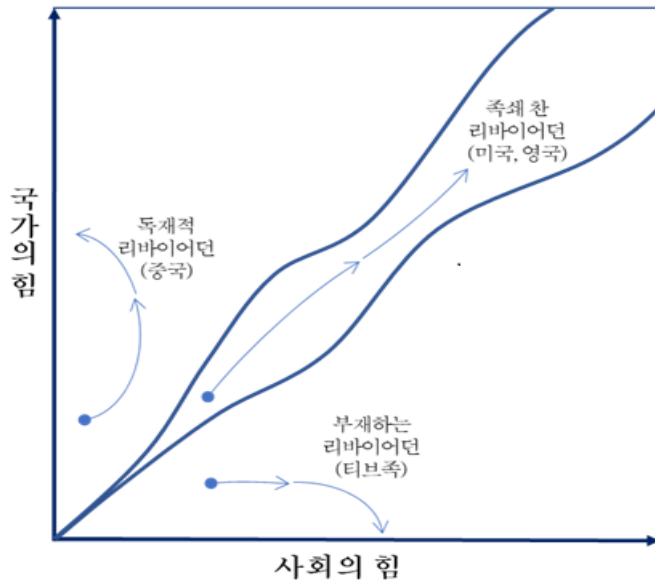
저자들은 전작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다”라고 주장하고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 도시인 노갈레스, 그리고 남북한을 비교 사례로 하여 포용적 정치와 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개념과 설명 모두 정태적이고, 고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저자들 스스로 『좁은 회랑』에서 적고 있듯이 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더욱 발전시킨 논의로서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동태적으로 변모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종축은 국가의 힘이고, 횡축은 사회의 힘이다. 국가는 흡수적인 의미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권력을 부여받은 리바이어던이 다스린다. 그러나, 사회의 힘이 이를 견제하지 못하면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되어 착취가 일상화될 수 있다. 반대로 나이지리아의 티브족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재하는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취약한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 사회는 비합리적인 전통적 ‘규범의 우리(cage of norms)’에 갇혀 있다.

이 두 가지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그 관계가 변화해 나가는데, 균형을 이룬 그러한 영역이 좁은 희망인 것이다. 좁은 희망은 특히 국민의 필요에 의해 구축된 리바이어던에 대해 족쇄를 채운 것으로서 권력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이 모형이 동태적이라는 것은 『거울 나라의 엘리스』라는 동화에서 차용한 용어인 ‘레드 퀴인’이라는 효과 때문인데,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사회의 힘도 강해지고, 그 반대도 성립할 때만 제자리인 희망 안에 머물면서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평자는 이 책을 ‘신자유론’이라고 부른다.

[그림 1] 독재적 리바이어던, 부재하는 리바이어던,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진화



자료 : 『좁은 희망』(2020) :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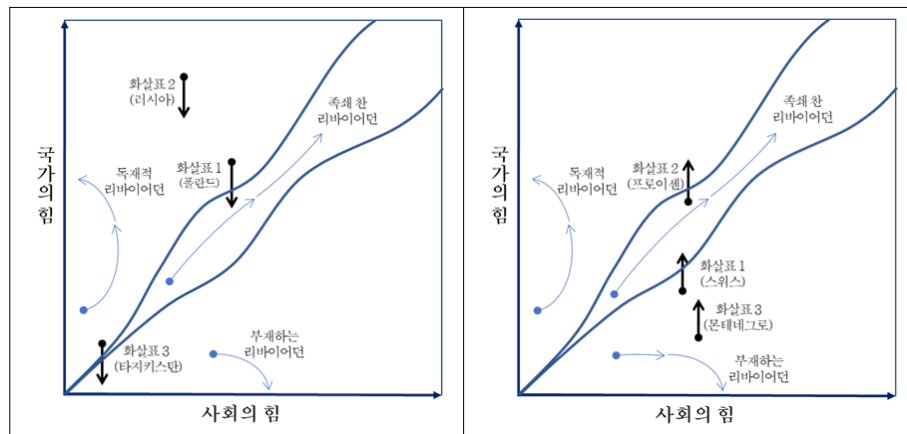
좁은 희망의 개념은 이에 머물지 않고 종이 리바이어던으로도 변형되는데, 이는 인도처럼 카스트제도의 강한 유산으로 인하여 국가의 힘도 사회의 힘도 강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형식으로서의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만, 법적 질서와 평등을 구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남미 국가들의 경우 부패한

관료 선발체계와 이러한 관료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너무 낮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인 종이 리바이어던의 사회이다.

900쪽에 이르는 책은 이제 이 좁은 회랑으로 들어간 사례, 들어가지 못한 사례, 안에 있다가 나온 사례 등 역사적 사건들로 가득차 있다. 이를테면 [그림 2]의 왼쪽에는 소련 붕괴 이후 각국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시민사회가 미성숙하여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시절부터 이미 자유노조 등을 발전시켜온 폴란드의 경우 국가의 독재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회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타지키스탄은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국가를 힘있게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왼쪽 아래에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은 ‘규범의 우리’라는 전통 사회의 비합리적 규칙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역시 규범의 우리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오른쪽에는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이센의 경우 16세기에 군주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하여 회랑 안에 있었는데, 30년 전쟁 이후 국가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면서 회랑에서 이탈하였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에 다시 회랑으로 진입했다가 나치 독일에서 재이탈하였다. 프로이센(독일)의 사례는 흡스적 의미에서 전쟁이 국가를 강화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저자들은 비슷한 시기의 스위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

[그림 2] 소련의 분기(좌)와 국가 권력 강화의 다양한 효과(우)



자료 : 『좁은 회랑』(2020) : 480(좌); 447(우).

하여 지역별 칸톤들이 연방국가의 권한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민주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좁은 회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은 유럽국가들이지만, 2차 세계 대전까지도 합리적인 국가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왔다.

스위스처럼 연방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족쇄 찬 리바이어던의 성격을 갖는 대표적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전권을 통하여 미국 사례는 여러 차례, 여러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를 리바이어던으로 만들면서도 족쇄를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주정부와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여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여하튼 남북전쟁과 노예제 철폐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려는 저자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숭한 긴장과 협력이 존재한 바 있으며, 스노든의 폭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오히려 리바이어던이 족쇄를 벗어난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정치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질주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로도 향하고 있는데, 이는 후속작인 『권력과 진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다만, 저자들은 이 책에서도 유발 하라리를 인용하면서 AI 기술 등이 초래할 ‘디지털 독재’에 대한 경고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이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회의 힘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이 책에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설명했던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실을 다시 소개하는데, 독재적 리바이어던하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용어와 개념이 다소 바뀐 것을 제외하면 논리 구조는 동일하다. 즉, 소련, 중국 등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스펀터적 의미의 파괴적 혁신을 용인하지 못하고 창의성의 발현이 제약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저자들에게 진정한 경제적 성공은 좁은 회랑에서만 가능한 스토리일 뿐이다.

그런데, 좁은 회랑의 폭은 어떤 사회에서는 넓게, 어떤 사회에서는 좁게 나타나기도 한다(p.654, 그림 5). 예를 들면 농업 사회보다는 도시 지역이 사회의 힘을 결집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회랑의 폭이 넓다. 그리고, 이렇게 회랑의 폭이 넓어진 사례로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시 중국과 한

국을 비교하면서 제조업이 똑같이 발달했지만, 중국은 사회의 힘을 결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제조업의 창조적 혁신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역할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3장에서는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사이의 레드 퀸 효과가 제로섬 게임으로 전략한 나치 직전의 독일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결집이 양극화로 전개되어 결국 나치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저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사태는 포퓰리스트 운동이다. 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길항 세력으로 작용하여 건전한 레드 퀸 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 새로운 지배를 창출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의 불균형과 갈등이 오히려 더욱 심해진다.

이상 간단하게 『좁은 회랑』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개념 및 이론과 더불어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현세에 이르는 시공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눈부시다. 그렇지만, 바로 그 화려한 설명에 대해 Dixit(2021)은 개념은 애매하고 이론은 일관성이 부족하며, 실증적 뒷받침이 부족해 서사적 예시를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념과 관련해서는 회랑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조건에서 진입 혹은 이탈이 가능한지, 사회의 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마지막 사회의 힘의 정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여러 시민사회의 결집과 더불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제일 뒤 14장과 15장에 이르러서야 등장한다. 14장에서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운동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흑인 노동운동이 산업가들과 연대하여 광산업자나 농장주들의 특권을 철폐하는 데 성공한 사실들을 들고 있다. 광산이나 농장에서 사실상의 강제 노동이 철폐되면서 노동운동은 더욱 발전하고 이들이 사회의 힘으로 작용하여 오랜 정치체제를 뒤집고 좁은 회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민주의적 계급 타협의 성공 스토리이다. 스웨덴 노동자당(SAP)은 우선 마르크스주의 계급 운동과 철저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농민과의 연대를 성사시켰으며, 사용자 및 정부와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을 통하여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노동운동뿐 아니라 기업가들 역시 사회의 힘으로 작용하여 자산 몰수 등의 국유화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에 나설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산별노조와의 타협에 의하여 임금압착을 실현함으로써, 혁신만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경제 체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가 순수한 경제 논리로서 타당한지는 논쟁거리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본질적 역할은 정치적이다. 그들은 잘 조직된 기업가와 노동자 간 불공평한 힘의 균형을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노동조합의 힘이 쇠퇴한 것은 미국 사회에서 힘의 균형이 대기업들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p.764)”는 서술은 사회의 힘 중에서 노동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저자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 발달 과정에서 이를 높은 생산성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주체도 바로 길항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임을 후속작인 『권력과 진보』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독재의 위험성을 고발하면서 “미래에는 노동운동이 결코 지난날의 영향력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도전들은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화한 (시민) 사회가 하나의 대안이다(p.794)”고 적고 있어서, 글로벌 차원의 노동운동 쇠퇴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좁은 희망』과 애쓰모글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주류경제학과 정치경제학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주류경제학의 뿌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일 것인데, 저자들은 하이에크의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무척 경계하였는데, 저자들은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사회의 힘을 강화하여 족쇄를 채우면 되는데,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현재 복지국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유방임으로 두었을 때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연구하면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컨센서스와 신고전파 경제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sup>2)</sup>를 떠올리게 한다. 장하준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경제학 레시피』 등 국내에도 (번역) 발간된 수많은 저서를 통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에 경도된 국제기구의 이코노미스

2)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최근 런던대 SOAS로 자리를 옮겼다.

트들이 오히려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고발해왔다. 장하준(2006) 교수는 『국가의 역할』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산업정책의 정치경제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애쓰모글루의 주장과 상호보완성이 발견된다. 애쓰모글루는 국가의 역량이 강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정치적 맥락을 강조한다면, 장하준 교수는 그를 위한 산업정책의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에서 장하준 교수가 질적 방법에 국한된 반면, 애쓰모글루는 질적, 양적 방법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한편, 애쓰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시작하여 『좁은 희망』과 『권력과 진보』에 이르는 세 권의 대중서를 서술하면서 일정하게 개념과 설명력이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애쓰모글루의 수많은 논문을 리뷰하고 제도경제학의 태두인 더글러스 노스와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박경로(2024)는 결국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상호 교류와 학습을 통하여 애쓰모글루 자신의 학문 발전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애쓰모글루는 명확히 “중요한 것은 제도”라고 적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다양한 시기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다. 따라서, 국가가 너무 중요하고, 특히 관료제의 역량이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좌우하지만, 리바이어던의 일탈을 막는 것은 늘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그는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and verify; p.144)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인정한 좁은 희망에 진입한 국가인데, 마침 2024년 12월 계엄령이 떨어지고, 정치적 혼란이 극대화된 바 있다. 응원봉 집회를 비롯한 사회의 힘을 통해 이를 극복해 온 과정은 우리나라가 지닌 민주주의와 자유의 복원력을 보여준 것이며, 역설적으로 ‘좁은 희망’ 개념의 현실 적합성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리바이어던은 언제든지 좁은 희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애쓰모글루 등 저자들에게 있어서 제도는 고정되고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단어가 행위성(agency)이다. 왜 이 단어를 행위성이라고 번역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냥 행위주체들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역사는 주체들의 능동적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저자들에게 “역사는 운명이 아니다”(p.498). 또한, 많은 사회과학에서 상정하듯이 역사적 현실은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원형으로 구조되는 것도 아니다(9장).

한편, 세계 불평등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시장의 힘에 맡겨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만큼 무책임한 논의도 없다. 이미 전작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개도국의 실패를 무지 때문이라고 보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각종 미시적 접근, 엔지니어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고발한 저자들은 이번 저작에서도 국제기구의 이러한 오류를 지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은 정치와 가치판단을 경제학적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데, 저자들이 보기에 이런 사고방식은 “경제와 정치를 따로 떼놓는 잘못을 저지른다”. 주류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경제모델과 방법론적 개인주의 모두 이미 하나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에크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오류는 미국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이제 노사관계론은 노동경제학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20세기 중후반까지 경제학이 주도하던 노사관계나 고용관계 학회 활동은(Kaufman, 1993) 이제 경영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노조의 고용효과 등과 관련한 계량 분석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인데, 애쓰모글루의 사고를 따라 노사관계론에도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을 접목하여 노동체제나 노동정치와 같은 개념을 상정하고 분석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87년 노동체제라고 말할 때의 노동체제는 노동시장, 노동운동, 노동통제의 총합으로 정의되는데(장홍근, 1999), 그 후 4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하튼 애쓰모글루는 주류경제학의 모형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차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치경제학, 발전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제도경제학을 정립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활약이 기대되는 학자이다.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번 책을 같이 저술한 제임스 로빈슨의 경우 남미와 아프리카를 주로 전공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번 저서에서 중국과 인도 이외에는 아시아 국가를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는 전범 중 한 명인 기시 노부스케가 전후 좁은 회랑으로 진입하는 데 기여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 새로운 비교정치경제학이 쓰여진다면 아시아국가들을 보다 심층 분석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Dixit(2021)이 지

적하듯이 저자들의 중국에 대한 논의는 다소의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중국에 대한 연구는 독재적 리바이어던하에서도 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관련한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 계량경제학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천착은 매우 뛰어나지만, 현재의 사건, 그리고 기업 사례와 노동과정에 대한 꼼꼼한 질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시 발전경제학의 거두 중 한 명인 이 근 교수<sup>3)</sup>의 경우 개도국의 추격(catch-up) 과정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아 왔는데, 발전경제학 이론 및 계량 분석과 더불어 추격의 성공 및 실패와 관련한 국가 및 기업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해왔다. 애쓰모글루와 수많은 토론을 함께 수행해온 MIT 대학 소속 연구자를 비롯한 여러 후진 연구자들이 향후 질적 사례 연구에 대해서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노사관계론이 풍부해지는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근 교수나 애쓰모글루의 장점 중 하나는 경제학적 논의와 방법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온 점이다.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사회과학자들과의 지적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수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아쉬움에 비해 많은 놀라움과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900쪽짜리 두께에 짓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1, 2장과 14, 15장을 먼저 읽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른 장들을 읽는 방안이다. 사실 다른 장들은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4개의 장을 먼저 읽고 나면 저자들의 사고 프레임을 알 수 있고, 이후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시기의 사례들을 쫓아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흡스의 리바이어던하보다는 많이 읽혀야 하지 않겠는가?

3)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에서 최근 중앙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세계슈퍼테크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25년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참고문헌

- 박경로(2024). 「제도와 성장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고찰」, *사회경제평론* 37 : 85~134.
- 장하준(2006). 『국가의 역할』. 부키.
- 장홍근(1999).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 1987~1997(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전병유(2023). 「서평 : 테크노 낙관주의에 대한 담대한 도전-『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 · 사이먼 존슨, 김승진 번역, 2023」. 『노동정책연구』 23 (4) : 247~253.
- 정준호(2023). 「기술 진보에 관한 맹목적 낙관주의 깨기 - 서평 도서 : 『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 · 사이먼 존슨, 2023, 생각의 힘」. *한국사회정책* 30 (3) : 199~205.
- Acemoglu, D. and S. Johnson(2023). *Power and Progress: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김승진 옮김(2023).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생각의 힘.
- Acemoglu, D. and J. A. Robinson(2012). *Why Nations Fail*; 최완규 옮김 (201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 Dixit, A.(2021). “Somewhere in the Middle You can Survive” : Review of the *Narrow Corridor* by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9 (4) : 1361~1375.
- Kaufman, E. B.(1993).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 박호환 옮김(1999). 『학문으로서 노사관계학의 기원과 발달』. 형제문화.